



2018년 7월 1일(제882호)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모두 뜻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비록 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신이 건강하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신체가 멀쩡하더라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과 정신에 아무런 질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건강을 잃은 한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건강을 청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아버지는 신체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딸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들은 소식은 딸이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

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자신마저 건강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곧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서 그 딸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회당장의 건강 역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1독서에도 나와 있듯이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죽음과 파멸, 저승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기운을 넣어주는 사람, 삶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 삶의 좌절과 아픔,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돌이켜보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삶의 기쁨과 활력, 건강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희성(세례지오현) 신부
중령 103위 성인(육군 37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1,13-15; 2,23-24

회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 시 2코린 8,7.9.13-15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마르 5,21-43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권천례 데레사



성인명: 권천례 데레사 (權千禮 Teresa)

신분: 양민, 동정 부부, 순교자

활동연도: 1783-1819년

권천례(權千禮) 데레사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딸이요,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 권상문 세바스티아노의 동생이다. 1783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권 데레사는 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91년의 신해박해로 아버지까지 잃었다.

권 데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덕행과 신심이 남달랐다. 또 성장한 뒤로는 온화함과 애덕으로 형제간에 평온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17세 때 일어난 신유박해로 온 집안이 풍파를 입게 되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게 된 권 데레사는 조카 하나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생활하면서 동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친척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선에서 동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며 설득하였다. 결국 그녀는 계속되는 친척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동정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였으며, 20세에 이르러 조속 베드로와 혼인을 하였다. 당시 조 베드로는 냉담자였다.

혼인날 밤에, 권 데레사는 ‘동정 부부로 살자고 부탁하는 글’을 써서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조 베드로는 마음이 변하여 아내의 뜻을 들어주었고, 잠깐 사이에 신앙심이 되살아나서 판사람이 되었다. 이후, 권 데레사 부부는 남매처럼 지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서 15년을 생활하였으며,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성직자를 영입하려고 복경을 오갈 때마다 모든 뒷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1817년 3월 말경에 포졸들에게 잡혀 문초를 받는 동안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혹독한 형벌을 곳곳하게 참아 내었다. 권 데레사는 관장이 배교를 권유하자 이렇게 답하였다.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 부모를 배반하는 경우에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다시 몇 차례에 걸쳐 문초와 형벌을 가하였지만, 권 데레사 부부의 신앙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권 데레사는 고통스러운 옥살이 중에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또 남편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하느님께서 내려 주실 순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자.” 하며 권면하였다. 권 데레사 부부는 2년 이상을 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굳건하였으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것은 1819년 8월 10일(음력 6월 20일) 이후로, 당시 권 데레사의 나이는 36세였다.

교우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그들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교우들은 권 데레사의 머리채를 바구니에 담아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성인의 집에 두었는데, ‘바구니를 열면 향기가 진동하였다.’고 여러 교우들이 증언하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p>역류</p> <p>"왜"냐고 물었다.</p> <p>"살기위해"라 답했다.</p>

상화이야기

메디치 경당



이탈리아 피렌체

로렌조 디 피엘로 데 메디치를 조각한 조각상 아래에, 황혼과 여명을 의인화한 인물들이 석관 위에 조각되어 있다. 빛이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각도에 따라, 맹수의 얼굴 모양을 본뜬 투구에 얼굴의 반 정도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조각된 이 인물은 로렌조 디 메디치를 조각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멜랑콜리의 포즈, 즉 턱에 손을 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인물은 지난주에 본 줄리아노와는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인데, 이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신앙인의 두 종류를 설명할 때, 활동적인 신앙생활과 보다 은둔적인 신앙생활을 대비하는 것을 표현한다고도 학자들은 설명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인으로 묘사된 황혼과 젊은(그러나 다소 근육질의) 여인으로 묘사된 여명이 다소 뒤틀린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보다 덜 완성이 되어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	---	---	---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3주일 : 백미 장비오 신부

◆ 교구장 동정

- 수원교구 제1대리구장 이성호 리노 주교 취임식 - 가톨릭대 국제 심포지엄
- 때: 7월 3일(화) 10:30 때: 7월 7일(토) 10:00
- 곳: 권선동 성당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 교황청 국무성 외무부 장관 DMZ 방문
- 때: 7월 5일(목)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